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신 불멸의 령도

박정록

오늘 우리 조국은 반제자주의 보루로 위용떨치며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 자랑스런 현실속에는 1990년대이후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을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을 짓부셔버리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도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국제적임무와 시대적사명을 다해나가야 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9권 145~146페이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여야만 매개 나라들에서 민족적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으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지도자들과 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적의리와 진실한 동지적우의에 기초하고있는 쿠바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쿠바혁명정부의 《조속한 종말》을 위한 새로운 반쿠바제 재조치를 취하고 쿠바혁명을 말살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쿠바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더욱 집요하게 벌리였다.

그러나 쿠바인민은 투철한 혁명적립장과 견결한 반미대결자세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는 한편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미, 사회주의를 위한 쿠바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피델 카스트로동지와 친분관계가 세대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어 피델 카스트로동지와 친분관계가 대

를 이어 변함없이 이어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매해 그의 생일과 당 및 국가창건일, 혁명승리기념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시여 친분관계를 두터이 하시였으며 구바당과 정부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구바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주체90(2001)년 4월 국제의회동맹 제105차회의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은 구바당과 정부의 고위간부들과 만나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고 서로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를 변함없이 표명하였다.

조선구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를 통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도 더욱 강화되였다. 주체90(2001)년 4월 4일을 비롯하여 매해 조선구바단결위원회 년차회의를 진행하여 연간 사업총화와 활동계획을 토의하고 이를 계기로 동지적이며 의리적인 두 나라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였다. 주체95(200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과 구바공산당사이의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어 두 나라 당과 정부사이의 친선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추동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우리 당과 정부의 투쟁에 의하여 반미반제 초소에서 동지적의리와 전투적우의로 맺어진 조선구바친선관계는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인도네시아와 월남과의 친선관계를 대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1(2002)년 3월 우리 나라에 찾아온 당시 인도네시아대통령을 접견하시였다. 그는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세계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뵈기로 결심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러했던것처럼 자기도 장군님을 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대통령의 숙소에 가시여 그를 소탈하게 대해주시면서 한시간동안이나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월남의 호지명주석과 함께 마련해놓으신 조선-월남사이의 친선의 기초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튼튼히 하고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1(2002)년 5월 4일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을, 주체96(2007)년 10월 16일에는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접견하시고 조선월남친선관계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담화와 회담에서는 선대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조선월남친선관계발전의 의의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궤도위에 올려세울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으며 토의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과 총비서의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굳은 지지와 연대성의 표시로 되며 조선월남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반미립장을 계속 견지하고있는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고무추동하

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가 여러 국제회의들과 기구들, 운동안에서 단결과 협조,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주동적역할을 하도록 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흐름이라는 간판밑에 다른 나라와 민족을 동화시키고 예속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도 격화되고있는 가운데 주체89(2000)년 4월 쿠바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뿔럭불가담국가 남수뇌자회의가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회의가 제국주의자들이 《세계화》책동을 배격하고 서로의 협조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회의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나라 대표단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전원회의와 분과회의들에서의 공식활동과 세계 많은 나라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집단적자력경쟁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 대표단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주체92(2003)년 2월에 진행된 뿔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외무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 참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렸다.

이 과정에 우리 공화국의 대외관계는 날로 확대발전되고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는 비상이 강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아세안지역연단을 통해서도 널리 과시되였다.

아세안지역연단은 주체83(1994)년 7월 랭전이 종식된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동남아시아지역 나라들과 주변대국들사이에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를 토론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상설적인 정부협의연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대표단이 주요아세안나라들을 방문하여 우리 나라 정세를 통보해주면서 새 아시아를 건설하는데서 아시아나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갈데 대한 우리의 립장을 알려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아세안지역연단회의에서 우리 나라 문제가 토의될 때 성원국들이 공정한 립장을 취하도록 선전활동을 벌리며 서방의 압력과 간섭에 이 지역 나라들이 자주적으로 맞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지지해주고 우리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나누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이 연단에 참가할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주체89(2000)년 타이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 고위일군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연단가입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제7차회의에서 정식 결정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대표단은 연단 제7차회의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으며 이후 주체91(2002)년 7월과 주체93(2004)년 6월에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상급회의들과 주체93(2004)년 11월에 진행된 아세안지역연단안보정책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 참가하여 서로의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대외정책적립장을 천명하고 협조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결정하였다.

이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진행하는 국제회의동맹 제105차총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대표단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주체89(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수리아를, 주체90(2001)년 3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방문하는 등 여러 분야의 대표단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여 반제투쟁을 강화하고 대외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주체89(2000)년 11월 나미비아대통령, 주체90(2001)년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상일행, 5월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 앙골라인민해방운동대표단, 6월 말레이시아 외무상일행과 적도기네공화국 인민대표회의대표단, 주체91(2002)년 3월 몽골인민혁명당대표단, 주체91(2002)년 4월 네팔국회대표단, 주체92(2003)년 11월 몽골수상, 주체93(2004)년 12월 몽골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 대통령, 대표단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왔다.

그들모두는 우리 나라에 와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에 대하여, 선군조선의 불패의 견인력에 대하여 깊이 느끼었으며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나날에 수많은 협정들과 조약들이 체결되어 우리 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단결과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미제의 《세계화》책동을 반대하고 지역적통합과 단결, 안전과 협조를 지향하는 여러 지역기구들과 나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90(2001)년 3월 1일과 2일 리비아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 특별수뇌자회의에서 아프리카동맹이 정식 선포된것과 관련하여 이를 지지하는 우리 당과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3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이 발표되었다. 대답에서는 아프리카동맹의 창설이 이 지역 나라들이 대륙의 정치, 경제적 및 사회적통합을 다그쳐 《세계화》의 도전에 대처하여 나가며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의 지위를 더욱 높이고 자기의 존엄과 리익을 확고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아프리카동맹과 아프리카나라들의 위업을 언제나 지지할것이라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프리카통일기구 의장인 토고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어 아프리카동맹창설을 축하하고 동맹과 동맹안의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참으로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은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